

檢, 이낙연 당비대납 자금 출처 수사 확대

대납 액수 1000만원 증가 관련자도 늘 듯

이후보측 “이번 경선과 무관하다” 당에 소명

전남도지사 선거가 검찰발 소용돌이에 빠져들 조짐이다. 이낙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의 당비대납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선관위가 당초 고발한 액수보다 당비대납 규모가 더 늘어나고, 관련자들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민주당 지역도입제 등을 소환조사해 전반적인 대납 규모를 파악한 뒤 이달 말로 예상되는 기소 전까지 워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1억원 짜리 수표 6장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전망이다.

이 후보 측은 이 수표와 관련 “지인들 간에 ‘선물’로 주고받은 사진에 불과하다”며 “당비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한 관계자의 스마트폰에서 수표 사진

이 발견돼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 수사는 이 후보 측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당비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는 한편, 당비 대납 행위의 워선 개입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계좌 주적을 통해 대납 당비의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이 자금의 불법성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지인을 동원해 분산 입금하거나 상호 교차 납부하는 방식으로 당원 2만6117명의 당비 3178만1000원을 대납한 혐의가 이 의원 측 지역사무소 직원 4명을 지난달 고발한 바 있다.

한 달여 간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

는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종진)는 당비 대납 규모가 1000만원 이상 늘어난 것을 최근 확인했다. 또 당비 대납 혐의로 구속된 비서관 A씨와 지역사무소 직원 B씨가 지역사무소에서 오랜 기간 함께 일해 왔고, 애초 선관위가 고발한 당사자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사 대상이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그때 드러나 원칙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구속자들의 기소 시점이 6·4지방선거 직전인 5월 하순께로 예정되어 있어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라 상당한 파급력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지방선거 검경 수사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를 열고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이 후보 측의 소명을 들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회의 내용에 대해 14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날 전남지사 후보 확정 여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진상조사위에서

는 당비대납 사건과 관련, 새로운 의혹이나 사실이 밝혀지기보다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확인된 사안만 다시 소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은 전남지사 후보 확정 논란과 관련, “본의 아니게 당비대납 의혹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되기 전의 일로서 이번 도지사 후보 경선과는 무관하며 경선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후보 측은 이어 “확인되지 않은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흘러 나오면서 마치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증폭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들을 당에 모두 소명했기 때문에 금명간 후보로 확정될 것이며 후보로 확정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한승원 칼럼

이 칼럼을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해 있지만 나 홀로 깨어 있다(眾人皆醉我獨醒)”라는 굴원의 어부사 한 대목을 생각한다. 다들 취해서 비틀거리며 방황하는데 홀로 깨어 있는 자는 성난 얼굴로 스스로를 성찰한다. 그렇게 성찰하는 자는 자기의 나아갈 길을 엄숙한 눈으로 응시한다. 그의 시선은 을 바를 수밖에 없다.

내 사전에는 ‘광주가 역사 속에서 늘 깨어 있는 도시’라고 쓰여 있다. 전두환 폭정 때 모든 도시가 잠들어 있는데 오직 광주만 깨어나 저항했다.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북돋아 준 시골의 노릇을 한 다음 그를 활활 타오르게 한 곳이 광주·전남 지방 아닌가. 그것은 광주시민들의 의식이 그 어느 도시의 시민보다 순수하고 깨어 있다는 것이다.

나는 광주와 전남에 뿌리내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생각한다. 광주·전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할 것이다.

지 않은 인물이란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시장감으로야 손색이 없는 인물이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천했을 터이니까.

하지만 나는 그 전락공천으로 인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나선 두 인물과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의 좌절감과 절망과 불만을 어떻게 다독일 것인가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전략공천이, 광주시민이 무조건 자기들의 의중을 따라 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광주시민의 깨어 있는 의식을 가볍게 본 것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것과, 그 전락공천으로 인해 광주의 민심이 두 토막 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한다.

아파하게 말한다면, 그들의 전략공천은 큰 도박인 듯싶다. 시민들이 전략공천을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표를 몰아준다면 천만만 다행일 터이다. 그런데, 만일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한 두 인물 가운데 현재 시장

광주가 시험에 들었다

뛰어난 지도자가 되려면 그 다스려지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꿰뚫어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시선과 같은 시선을 가지려고 애써야 한다.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이 나라의 거대 야당이, 6·4 지방 선거를 계기로 광주와 전남에 깊이 뿌리내리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그래서 그들은 광주광역시 후보를 전략공천하고 나선 모양이다. 차기의 새 정권 창출을 바라는 광주시민들이 자기들의 그 전략적 공천에 무조건 호응해주리라 믿고. 그렇지만, 나는 그들이 어느 광역시처럼 경선에 의의하고 전략적으로 공천을 한 것을 아무래도 좋게 여겨줄 수가 없다.

왜 광주의 깨어 있는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의지에 따라 하향 전략적인 공천을 한 것인가. 그들은 자기들이 광주시민들의 자존심과 정서를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자존심과 정서가 상하면 반발하게 되는 것이 민심인데.

그들이 전략공천을 한 인물이 알차

과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일 자존심에 먹칠이 된 광주의 시민들이 기어이 그들을 선택한다면 어찌할 심산인가.

그들의 전략공천은 칼날을 타는 무당의 행위와 같다. 칼날에 발을 베어 낭패를 당하거나, 칼날을 잘 타고 나서 한 바탕 박수를 받으려는 게임을 하고 있다. 그 게임은 그들 가운데 4년 뒤의 대선을 통해 정권창출을 노리는 한 인물이, 어차피 광주가 자기들의 전략공천을 받아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을 한 것인가. 더 이상 풀러 낼 수 없다는 결의로 칼을 타고 있는 그들의 게임을 바라보는 이 늙은이의 가슴은 조마조마하다.

어느 종교인들의 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라는 말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 하나의 아픈 시련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하필 광주시민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광역자치체 가운데 오직 광주광역시 후보만 전략공천한 것이 그것이다. 몹시 냉철하고 지혜로우면서도 저항적인 성향의 광주시민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소설가>

“임... 행진곡 제창 배제 朴대통령이 광주 모독”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국가보훈처가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준비하면서 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배제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이 불투명한 것<광주일보 13일자 1면>으로 알려지자 “박 대통령이 광주를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냈는데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못한다고 한다. 박 대통령 역시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12일 광주시에 보낸 ‘제3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행사 식순이 개시-국민의례-헌화 분향-5·18 민주화운동 경과보고-기념사-기념공연-폐식 순으로 확정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빠져 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행진곡 제창도 무산된다면 광주는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북구 갑)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끝내 거부하는 계획안을 광주시에 통보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은 위태롭게 떠 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호를 강제로 침몰시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승리 다짐하는 윤장현 후보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13일 오후 광주 서구 농성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다. 윤 후보를 비롯한 시민 후보 및 지지자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새정치연합 “윤장현, 양자대결이 더 유리”

단일화 패배 후보 표 흡수

전략공천후 지지도 10%↑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 강운태 후보, 이용섭 후보, 윤장현 후보의 ‘3자 대결’보다는 강운태 후보와 이용섭 후보의 단일화를 통한 윤장현 후보와의 ‘양자 대결’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새정치민주연

합의 일일 상황보고서는 최근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를 토대로 광주시장 선거 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담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3자 대결보다는 양자대결이 정당 공천을 받은 윤장현 후보가(단일화에 패배한 후보) 조직표를 흡수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전략공천 이후, 윤장현 후보의 지지도가 10% 이상 오르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내의 부동산 표가 윤 후보 지지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어졌다. 또한 전략공천으로 인해 윤 후보가 지속적으로 여론에 노출되면서 인지도 제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적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상황 보고서는 말 그대로 당일 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단순 참고 자료 그 이상의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 전략공천에 대한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좋은 정책·공약 투표로 응원하세요

"현명한 유권자는 정책과 공약을 먼저 봅니다"

후보자 TV토론 주간 (5. 22. ~ 5. 29.)

이 기간 후보자 TV토론이 집중 방송됩니다. TV토론은 정당·후보자 정책공약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꼭 시청하세요.

※ 방송 일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www.debat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남남도선거관리위원회

함께 만드는 좋은 공약

K-매니페스토

후보자는 공약에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기한,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투표로 응원하세요

함께 만드는 정책선거,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 (<http://party.nec.go.kr>)를 방문해주세요

유권자 공약제안 '공약은행'
생활에서 느낀 지역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약은행에 제안해 주세요.

후보자 공약제안 '나는 후보자다'
유권자가 제안한 공약을 반영해 주세요. 모든 후보(예정)자가 공약을 제시하고 본인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좋은 공약 공약제안 이벤트

이벤트 기간 2014. 4. 17.~5. 20.
당첨자 발표 5. 28.(자세한 사항은 정책공약알리미 홈페이지 참조)

상 품	노트북(100만원 상당) 1명	아이패드미니(16G) 3명	해피머니상품권(1만원권) 300명
-----	------------------	----------------	--------------------

정책공약알리미 *유권자 공약제안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